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3~9/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운주사	6	불교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금강반야바라밀경 금필사경		짐모아	7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3	온계시초 : 출가 이전 소년 시절의 성파 스님이 지은 한시 모음	조봉주/성범중 역주	통도	8	대반열반경(불교경전12)	강기희	민족사
4	불교개설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9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조계종출판사
5	초학자와 함께 하는 계율공부	정현/서주 그림	담앤북스	10	궁금해요 불교	도업	운주사

책세상

수좌의 사유 더한 108가지 '금언'

〈金言〉



전등수필
월암 지음
담앤북스
1만6800원

전등사서 속 글귀 엄선해 엮어
수필 형식으로 깊은 사유 담아
유려하지 않아도 다정한 가르침
불이(不二) 세상 만들자는 다짐도



▲저자 **월암 스님**은…1973년 경주 중생사에서 도문 화상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에서 고암 화상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중국과 한국의 제방 선원에서 수선 안거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하고 벽송사와 기기암에서 선원장 소임을 지냈다. 현재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에서 정진하며 사부대중 수행공동체 불이선회를 이끌고 있다. 저서로 〈간화정로〉 〈돈오선〉 〈친절한 간화선〉 〈선원청규〉(주편) 〈좌선요결〉 〈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 〈생각 이전 자리에 앉아라〉 〈선율겸행〉 등이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사둔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누구나 그런 상황에선 당연히 즐거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한편으로는 언제 매도해야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도 뒤따를 터. 그러다 시기를 놓쳐 장대 음봉의 길에 접어들 때면 막심한 후회가 밀려온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구들을 모아놓고 설하신 이 가르침은 불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금언(金言)이다. 부처님께선 '두 번째 화살'에 빗대 범부와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를 설했다. 두 번째 화살은 내경(內境), 쉽게 풀면 외부 현상에 대한 내 마음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주식의 상한가든 하한가든 내 의지와 무관하게 벌어지는 객관화된 현상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이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나의 감정이 '두 번째 화살'이다. 지혜의 유무와 관계없이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는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나의 감정적 얽매임인 두 번째 화살은 노력 여하에 따라 피할 수 있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한 월암 스님은 이런 부처님의 설법과 역대 조사들의 선어록에 자신만의 사유를 덧붙여 책으로 펴냈다. 〈전등수필〉은 중국의 〈전등록〉과 고려시대 진각혜심 선사의 〈선문염송〉 등 '전등사서(傳燈史書)'의 중요한 글귀를 엄선해 108편의 수필 형식으로 엮은 책이다.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은 그 속에서 부처가 아닌 바로 자신의 참모습을 찾기 위함이다.'

월암 스님의 이번 신작은 조금 특별하다. 앞서 선 수행과 관련된 여러 책을 펴낸 스님이지만 〈전등수필〉은 그간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며 참구한 것의 새로움 관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禪)은 관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문제를 참구하는 것임을, 조금은 직선적이면서도 깊은 사유로 독자에게 설명한다.

제자와 호떡 내기를 하는 조주 선사의 이야기부터 땔나무가 없다며 법당에 있는 목불로 불을 지핀 단하 선사의 일화, 〈금강경〉에 달통한 덕산 선사가 노파의 질문 한마디에 말문이 막혀버린 사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한다"는 살불살조(殺佛殺祖)의 정신을 설한 임제 선사까지.

월암 스님은 출판사와의 인터뷰에서 선어록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살불살조'에 대해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따뜻하고 충만한 자비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부처는 홀로 서는 자이기 때문에 설사 부처, 부모, 스승에 의지해서 배움의 길에 나섰다 하더라도 결국 그 완성에 있어서는 홀로 독립할 수 있는 결기가 필요하다"며 "설사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대등하고 동등하게 함께할 수 있는 출격장부가 되라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많은 것이라도 다투면 항상 부족하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누면 인정이 남아돈다'는 월암 스님의 말은 '탐욕이 있는 사람은 천만금이 있어도 늘 부족하고, 욕심이 끊어진 사람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는 수행자가 갖춰야 할 자세를 설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월암 스님의 법문은 유려하지는 않지만 이처럼 다정하고 깊은 울림을 준다. 서슬 퍼런 죽비 소리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예리한 직관으로 수행자뿐만 아니라 현대인에게 가볍게 다가간다.

월암 스님은 오늘날 괭배해진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등수필〉을 썼다. 소통과 공감, 공존 의식이 부족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내면이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스님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달라"고 바람을 전했다.

그렇기에 〈전등수필〉은 사유와 소통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른바 '틈'을 주는 책이다. 스님은 깨어 있고 열린 삶을 통해 공감과 공명, 공존이라는 불이(不二)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님의 바람처럼 〈전등수필〉을 통해 출가수행자는 핵심 종지에 대한 정견을 갖추고, 재가수행자는 귀감이 될 만한 언구를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겠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주먹으로 치면 죽이는 것이요, 손으로 일으켜 세우면 살리는 것이다. 쥐면 주먹이요, 펴면 손이다. 살인도는 번뇌 망념의 중생심을 끊어내는 방편이요, 활인검은 반야의 보리심을 드러내는 방편이다.

–'살인도와 활인검' 중에서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린다. 취하고 버리는 것이 모두 집착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놓아라. 일체를 통째로 놓고, 놓았다는 생각조차 놓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간택이 허물이니' 중에서

행하는 행위는 있으나 행위하는 주체는 공이다. 업은 마음대로 짓는다. 마음이란 본래 공이라 그림자에 불과하다. 마음이 없음을 알면 업은 절로 없어진다. 즉 마음을 일으킨 자가 없으니 지은 바 없이 짓는 업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업보는 있으나 짓는 자가 없다' 중에서

알기 쉽게 풀어낸 대승불교 지침서



대승불교개론
조계종 교육원 편찬
조계종출판사
1만7500원

대승불교는 기원 전후 탄생해 여러 계통의 사상이 만들어지는 데 바탕이 됐다.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과 티베트로 전파됐고, 동아시아 각 나라의 특징적인 사상과 문화를 발전시켰다. 책 〈대승불교개론〉은 대승불교가 일어난 배경부터 특징과 전파된 양상, 주요 사상, 동아시아에 전개된 과정까지 대승불교의 전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룬 개론서다.

조계종 교육원은 대승불교의 다양한 사상과 수행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담아 〈대승불교개론〉을 발간했다. 책은 △대승불교의 흥기 △대승불교의 특징과 양상 △대승의 주요 사상 △동아시아 대승불교를 주제로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책에서는 대승불교 전개 과정의 연속성과 각 사상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대승불교의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교의 핵심 개념들이 나오게 된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밝혀 불교의 역사적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기존 학설은 물론 최신 학설까지 종합적으로 소개했으며,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중심인 한국·중국·일본 불교를 균형감 있게 서술해 눈길을 끈다.

교육원, 〈대승불교개론〉 발간
사찰승가대 기본교재로 활용
동북아불교 균형감 있게 서술
최신 학설까지 종합적 소개해

발간에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교육교재 편찬추진위원회와 집필진이 함께했다. 불교 전문교육기관 교수로 구성된 10명의 편찬위원과 국내 집필진 12명이 내용을 다듬고 조율해 만든 성과물이다.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인 스님은 물론 불교공부에 관심 있는 입문자들에게도 '대승불교'의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교육원은 '대승불교개론'을 사찰승가대학 교과목 기본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편찬위원장을 맡은 지우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기원전 5세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수천 년 세월이 지난 지금 세계 각지에 전파돼 현대인들에게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 행복과 자유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는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 본연의 진리성을 간직하면서도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 특성에 맞게 부처님 가르침을 변주하며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승불교의 사상과 실천 체계는 국가와 시대가 처한 상황에 맞춰 진행된 대기설법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대승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문화, 역사, 경전 전반의 요지도 함께 다루고 있다"며 "(책이) 불교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의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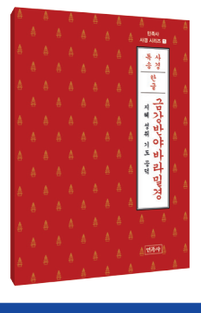
김내영 기자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